

제3회 서울여성조합원대회 맞이
여성노동자 인터뷰

글 심는 순서

발간사

세상을 만드는 여성, 세상을 바꾸는 여성

02

인터뷰

1.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노동자 이야기

04

2. 행복하게 자랄 권리, 함께 키울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11

3.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쉬지 못하는 콜센터 여성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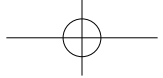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19

4.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긍지

27

5.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니라 정성만 가득 담긴 밥을 하고 싶다!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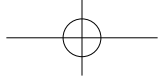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발간사

세상을 만드는 여성, 세상을 바꾸는 여성

세상에 여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아이를 돌보고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여성의 노동이 있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여성들은 핸드폰을 만들고, 건물을 청소하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사회가 굴러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세상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지만, 보통 여성이 하는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밥 짓고, 청소하고, 아이를 돌보고, 아픈 사람 간호하는 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노동이지만, 여자들이나 하는 쉬운 일로 치부되고는 합니다. 집에서 이런 역할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는 논다고 말하고, 일터에서 이런 노동을 하는 여성들은 저임금에 불안한 고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태도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할 덕목이지만, 여성들의 특성으로 여기고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서비스직 여성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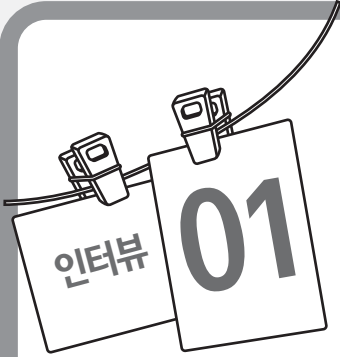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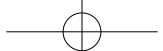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들은 부당한 세상을 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여성의 노동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음을 알리며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투쟁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맡아오던 노동이 중요한 만큼, 여성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보육교사들의 투쟁, 마트노동자들의 투쟁,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투쟁입니다.

세 번째 서울 여성조합원 대회는 세상을 만들고 바꾸는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결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만남이 서로의 투쟁에 힘을 주고받으며 연대가 확대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대회를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상을 바꾸는 싸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성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책자가 대회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2. 12. 15

사회진보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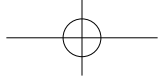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노동자 이야기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매장은 이제 현대인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들이 주말에도, 밤늦게라도 장을 볼 수 있도록 늘 그곳에 불을 환히 켜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없이 종종 걸음으로 필요한 물품 사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노동자들이 기억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숨죽이고 있던 서비스 노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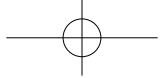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또한 민주노조와 함께 노동자로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그러합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투쟁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에게 전가되는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라는 것은 구매자에게 감정적 만족을 제공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편안한 여행, 안락한 식사 같은 것들이죠.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써야 한다거나 어려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손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의 감정을 잘 배려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일로 인식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고객 비위 잘 맞추면 되는 일로 생각되기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오랜 시간 사회경력이 단절된 중년 여성들이 대형유통매장의 서비스 노동자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몸을 많이 쓰는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대형유통매장 서비스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변화를 위한 그녀들의 투쟁에 관해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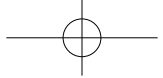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마트에서는 매출이 인격”

대형유통매장들이 깨끗하고 화려한 외관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도 대접을 못 받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들에게 대접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 가족이 서비스 노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심하게 하대하는 사회 풍조를 바꾸지 않으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녀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고객이 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진상 고객을 대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뺨을 맞거나 욕을 얻어먹기는 일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자존심 구기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괴로운 순간을 서비스 노동자들은 매일같이 겪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입장도 반드시 고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연맹은 대형유통매장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사회가 주목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감정노동을 어엿한 노동으로 인정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사회나 기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측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매뉴얼만 가지고 있을 뿐 기



업을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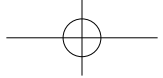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매출이 인격이에요.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압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러다보니,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감정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죠. 8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감정노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구실 하기 어렵게 만드는 휴일 노동

유통매장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큰 겪는 또 다른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휴일 영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다른 직장은 주말에 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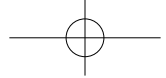


지만, 유통매장들은 주말에 매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영업을 계속하지요. 그래서 유통매장의 서비스 노동자들은 주말에 쉬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는 것을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명절 때에도 하루 정도만 쉬기 때문에 사람구실을 못해요. 시골에 내려가는 건 엄두도 못 내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명절에는 쉬었던 백화점들조차도 최근에는 쉬지 않는 추세이고 대형할인마트는 365일 영업하게 된 지 꽤 오래입니다. 백화점들의 연장영업 문제도 심각한데, IMF 이전에는 오후 7시 반에 폐점했던 것이 IMF 이후에 8시 반으로 연장 되었고, 지금은 9시까지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저녁밥조차도 가족들과 같이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7시 폐점), 일요일에도 1회씩 휴점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가 작년에 통과되어서 그나마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그 법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 안에 있는 할인점의 경우 대형유통매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연맹은 백화점을 포함하는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과 휴점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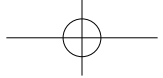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 날짜까지 잡혔으나, 환노위가 파행으로 치달아 물 건너가게 된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경옥 사무처장은 실망한 기색 없이 당당한 표정으로 될 때까지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올해 설에 설 영업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앞에서 차레상 지내기 퍼포먼스를 했어요. 방송 3사에 모두 보도되고 화제가 되었지요. 투쟁을 좀 다르게 만들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회를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받는 여성들이 나서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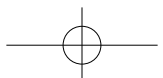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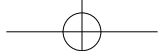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여성, 노동조합과 함께 세상을 바꿀 힘을 만들어 가자!

이경옥 사무처장에게 가장 바꾸고 싶은 현실이 무엇이라고 질문했더니 바로, 영업시간 줄이는 것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전국의 백화점은 80여개, 대형할인마트, 면세점 매장까지 하면 어머어마한 숫자의 유통매장이 존재합니다. 이경옥 사무처장은 모든 유통매장이 한 날 한 시에 문을 짝 닫고 그 곳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당장 내가 오늘 시장을 못 봐도, 그녀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함께 바꿔나갈 여성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을 하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여성들의 아주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세상이 바뀌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조합원들을 보면서 세대를 바꿔기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이 역할을 여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해나갔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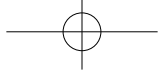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행복하게 자랄 권리, 함께 키울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심선혜 부지부장

아이들은 꿈나무라고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장합니다. 따라서 양육은 꿈나무 아이들을 차세대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중요한 노동입니다.



오랜 역사동안 여성들은 양육을 맡아왔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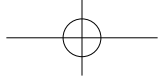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양육 노동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현재 다양한 보육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공적 보육시설은 부족하고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심선혜 부지부장을 만났습니다. 심선혜 부지부장은 보육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의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큰 잘못이며, 보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육

가끔 여성들은 집에 가서 애나보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쉬운 일이니까 마땅히 여자들이 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보육은 중요한 노동이고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선혜 부지부장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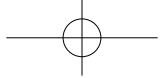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심선혜 부지부장은 최근 보육좌담회에서 만난 어떤 여성이 이번 외출이 아이 낳고 3년 만에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해 깜짝 놀란 경험



을 사례로 들며 엄마들의 육아부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수의 엄마들이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피로감이 쌓이지만 풀지 못하고, 다른 사회활동도 여의치 않아 고립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힘들더라도 헌신과 사랑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고 엄마가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실정이라, 이런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생애초기에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자라기 위해서는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굳이 그 역할을 엄마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욕구를 잘 헤아릴 수 있는 성인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는 엄마들이 의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아이를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즐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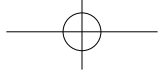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아이들의 입장에서든 가정형편이나 부모의 상황에 따라 돌봄이 좌우되는 것보다, 모든 아이들이 공적인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와 놀 거리가 준비된 곳에서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 아래 자라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엄마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전문적인 돌봄을 위해서 보육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사건사고, 선생님들 자질이 부족해서일까?

보육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려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전문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은 너무 적고, 보육교사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맡기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괴로운 현실입니다. 언론에서 어린이집 학대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다보니 학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고, 보육교사들의 입장에서는 CCTV 설치해서 감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도 사회가 보육교사들 탓만 하니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심선혜 부지부장과 학부모와 보육교사가 불신하는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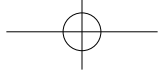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저는 어린이집에서 10년 일했습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보도를 접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가 있을까 싶을 테지만, 잠깐 눈을 떴는 순간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곳이 보육공간입니다. 아이가 콩밥에 있는 콩을 코에 넣었는데 기도가 막혀 전신지체가 온 경우를 본적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거나, 선생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상실하고 때리는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 교사로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에 대한 사랑 없이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다수가 관찮은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들이 악마나 괴물이 되는 것은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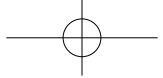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에 대해 선생님들의 인성과 자질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보육현장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업무 자체가 기계를 다루거나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는 달리, 사람을 대하는 일이며 특히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욕구가 다양한 어린이를 돌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은 곧바로 보육의 질과 연결됩니다. 보육교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최근 무상



보육이 이슈가 되고 정치인들이 각종정책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작 보육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등한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따끔하게 꼬집어주었습니다.

“보육교사들 10시간 이상 일하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조금 더 붙는 정도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혼자서 많은 아이를 돌보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소변 못가리고 이제 밥알 씹는 아이를 혼자 5명에서 7명까지 돌보게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화장실도 애들을 번기 앞에 앉혀놓고 봐야 할 정도예요. 그새 애들에게 무슨 일 생길까 걱정이 되니까요. 애들 씻기고 먹이고, 토하고, 밥 쏟고, 싸우는 애들을 열 명 넘게 돌보면 교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학부모에게 한번이라도 걸리면 이동학대 교사가 되는 거죠. 사람이 일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악마화 하는 실정이라고 생각해요.”

심선혜 부지부장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원장세력이 강해서 이들의 이해만이 관철되는 실정이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제 사회단체들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육예산의 경우 부모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말고도 국공립 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과,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전쟁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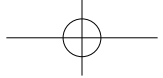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같은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보육이나 복지로 돌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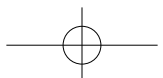
일하기가 어렵고 고된 상황이지만 보육교사로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갓난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은 아기와 감정을 교류하고, 아기들이 선생님을 엄마처럼 믿으면서 친밀감이 형성될 때 가슴 뭉클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큰 아이들은 졸업시 켄 때가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을 돌볼 때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선생님 소리 한번 듣기 어렵지만, 큰 애들이 그 동안 고마웠다고 편지를 건넬 때 보람과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람이 노동조건이 열악해도 교사들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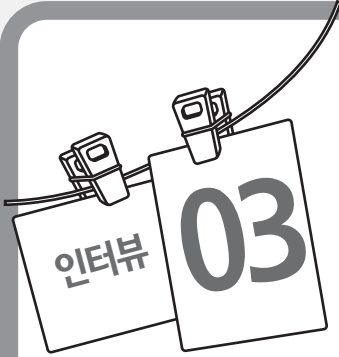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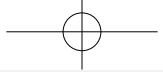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함께 바꿔갈 동료 여성들에게 한 마디 해주었습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에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치고 올라가자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육교사들 사회적으로 괘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은 아이들의 보육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바꿉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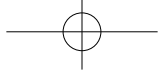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쉬지 못하는 콜센터 여성노동자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 지부장

세상에 핸드폰이 많아진 만큼 전화 걸 일도 많아 졌 습니다. 불편을 해결하기 위 해 이용하는 고객상담센터 에 전화를 걸면 친절하한 텔레 마케터의 목소리를 쉽게 들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 리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들 을 뿐, 보이지 않는 그녀들 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과 투쟁을 알아보고자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김영아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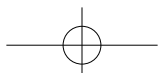


콜센터 노동자의 하루

500명 정도의 인원으로 365일 24시간 일해야 하는 120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적은 인원을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근무 조를 여러 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아 지부장은 주중 평일에 일하는 파트와 주말에 일하는 파트, 주중에서도 오전에 일하는 파트, 저녁에 일하는 파트, 야간에 일하는 파트로 나뉘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에 휴식시간은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 때는 식사시간 한 시간이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평일 주간조인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요. 주간조도 8시에 출근하는 사람, 9시에 출근하는 사람, 10시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다 다릅니다. 9시에 출근하면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바로 업무에 들어가죠.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은 없고, 알아서 틈틈이 화장실도 다녀와야 합니다. 120이 일반 민원도 하지만 수도, 보건소 민원, 산하기관 전화, 스물다섯 개의 구청 안내 등도 전부 하니까 업무 범위가 무척 넓고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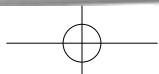
또한 김영아 지부장은 위탁업체들 간의 실적 경쟁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광범위한 업무를 쉴 틈 없이 해야 하지만, 다산 콜센터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닙니다. 2007년 설립된 다산콜센터는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KTcs, 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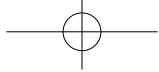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피씨, 효성ITX라는 세 개의 위탁업체로 나뉘어 있어 업체 간 경쟁도 심하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콜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받는지를 관리자가 일일이 체크합니다.

“평가를 항상 콜수로 하니깐 막막하죠. 콜수를 가지고 s부터 d까지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 때문에 압박이 큼니다. 그리고 120 다산콜센터는 다른 콜센터에 비해서 교육도 많이 받아요. 입사하고 나면 한달 반 (6주) 동안 교육 받습니다. 다른 데는 길어야 2주 정도 받는데, 위탁받은 세 개 업체를 통합해서 6주 동안 교육을 받으니 힘듭니다. 공부할 양도 많고 처리할 업무도 방대해서 이 업무 자체가 민간위탁해서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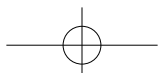
모든 일에 직업병이 있기 마련이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질환은 성대결절입니다. 목을 무리하게 쓰는 경우 생기는 질환인데, 대다수의 콜센터 노동자들은 2~3년만 지나면 대부분 목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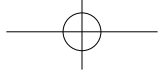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방광염이나 이명 증상(귀에서 소리가 들리는)도 있지만 제일 심각한 것은 성대결절이에요. 저도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벌써 목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 가봐야 할 거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성대결절이 심하다면 정신적으로는 감정노동이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객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깐 쉬면서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힘든 전화를 받았는데 쉬지 않고 다음 전화를 받으면 감정이 치유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그나마 지금은 노조 만들어지면서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은 육체노동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이 여성의 천성이라고 여겨 여자라면 당연히 힘들이지 않고 쉽게 감정노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콜센터 노동자도 사람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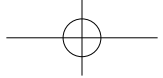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업체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무조건 친절할 것만을 강요합니다. 이 현실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김영아 지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쉼 권리와, 무리하게 실적을 강요하는 관행의 변화 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권 침해 현실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욕설과 폭언, 성희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면서도 언제나 친절이라는 감정노동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고객들로부터의 성희롱을 막기 위한 노력은 쉽진 않지만 가능합니다.

“텔레마케터들이 성희롱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몇 번하고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희롱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두 명을 고소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할 수 대책이라, 마음 같아서는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래도 신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덧붙여 다산콜센터는 공공기관이라 그나마 낫지만 통신이나 금융 쪽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사회적으로 함께하자는 캠페인을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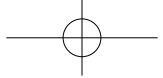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이는 것을 통해서 바뀌어나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무금융연맹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공공운수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19개 노조,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9월 18일이 출범하여 공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콜센터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이러한 활동이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립한 노동조합

2012년 9월 24일. 드디어 노동조합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이용해 본 120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2007년 다산콜센터가 설립된 지 5년 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겁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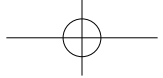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20분씩 일찍 출근해서 교육 받고, 한 달에 한 번 시험보고 이런 거 다 임금으로 안 쳐줬었는데,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 체불 임금으로 인정해서 받게 되니 환영하는 분위기에요. 주요요구는 서울시에 직접고용 정규직화이구요.”

한편 조직화 과정에서 기혼인 여성이 2/3라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특성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혼 여성이 많다보니 육아나 가사노동 등으로 모이고 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쉬웠다고 합니다.

“처음에 노조 만들 때 간부들이 모인 장소도 거의 애들 놀이터였어요. 한 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쪽에서는 우리가 회의하고. 무척 시끄럽기는 했는데 모임은 잘 됐어요. 퇴근하고 모임하려 하면 애들 밥 차려주러 가야한다 해서 저녁 모임은 힘들고 점심에 도시락 같이 먹으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여성의 투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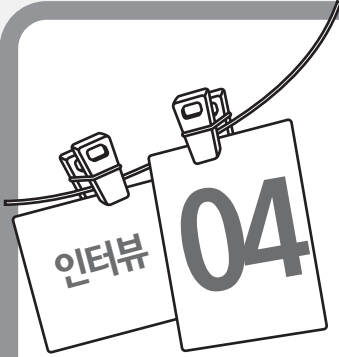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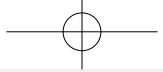
김영아 지부장은 90년대 이후 대거 사라져버린 여성사무직이 콜센터 노동자로 돌아왔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것은, 여성노동의 변화라는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과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성이자 비정규직인 사업장에 노동조합 설립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다산콜센터에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은, 대규모의 콜센터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뀌나갈 여성 노동자들에게 한 마디를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아/가사와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들의 투쟁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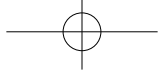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공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 이경자 부분회장

출가한 자녀들에게도 퇴직
한 남편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
을 영위하고자 일자리를 찾아
나선 5-60대 여성들에게 주어
지는 일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 중 하나가 청소일이죠. 여성
들이 예전부터 해 온 일이니까
잘 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어지니까 아침에 나오는 것
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예전부터 집안에서 해 온 일이라는 이유로, 청
소일은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의 저평가는



청소노동을 대표적인 최저임금 직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잠이 없으니까, 소일거리로 삼아 왔다는 것은 고정관념입니다. 청소노동자들 대부분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도 가사노동을 해야 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청소노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못 일어나 지각할까봐 걱정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청소노동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악덕업체 퇴출을 걸고 오랜 기간 투쟁해, 곧 원청인 연세대와의 교섭을 앞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분회 이경자 부분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 모자라는 일손

이경자 부분회장님은 두 달 전 새롭게 부분회장 직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아직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어 오전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분회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다섯시 반이면 다 나오죠. 나와서 일은 6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일을 하고나서 9시부터 10시까지가 아침식사 겸 휴게시간이고. 화장실은 물을 해야 하니까, 물이 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제일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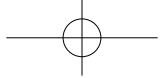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는 자기가 맡은 사무실이나 열람실, 강의실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노동자들의 하루는 일반인보다 3-4시간 빨리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전과 오후청소를 마무리하고, 4시경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대학 건물은 하나같이 큰데 함께 일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수는 충분한지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중앙도서관인데, 오전반이 7명이고 오후반이 2명이에요. 인원수는 충분하지 못하죠. 일손이 늘 딸리니까 맨날 불만이 있고. 모자라는 일손을 더 채워달라고 해도 예산부족이다 어쩌다 해서 안되죠. 2013년도 임단협 때는 꼭 인원충원을, 한 분이라도 더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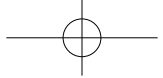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노후보장 안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실질적인 가장

보통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저임금은 남편이 벌 테니 여성의 임금이 적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서 기인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장인 여성들이 많아 이렇게 적은 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령이 있어서 그런지 거의 다 실질적인 가장이라고 봐야 해요. 왜냐면 애들은 다 자기 짝지어서 나갔잖아. 또 우리 연령대는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보장이라는게, 우리 때는 노후보장을 아무것도 준비한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여성가장이라고 봐도 되는데, 항상 생활비가 부족한거죠.”

생활임금 보장이 주요한 요구인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인상이 되면 좀 살만할지도 이야기 나눠 보았습니다.

“시급 5100원으로는 평균 해봐야 117만원, 수당 붙고 다해도 이 정도예요. 이거로는 물가 인상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번에 2인 가족이라면 무슨 경제신문에서는 인당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왔던데. 그래야 문화생활도 하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고 보니까 부조금 이런 것도 생활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받았던 것은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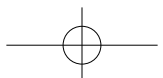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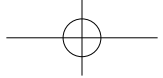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아야 되잖아. 공짜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생활비가 부족하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얼마 없어요. 제 생각에는 2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돈이라는 것이 한정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써야 할 돈은 많아지겠지요. 부조금은 최소한의 사회생활이자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돈이고, 출가한 자녀들에게 가끔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다 똑같은 테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젊을 때보다 훨씬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노후보장은 안되니, 한 달 월급이 정말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대분회의 투쟁

연세대분회는 현재 어용노조를 설립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갈등을 조장해온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원청에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일휴먼, 장풍HR이라는 회사가 그러한 회사입니다. 제일휴먼은 지난해 노무사를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내부문서가 발견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장풍HR은 한진중공업 투쟁 당시 폭력을 휘두른 용역업체로 유명합니다. 또 하나 퇴출대상인 업체는 아마노코리아라는 곳인데,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입니다. 현재 2013년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참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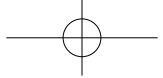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이러한 업체들의 퇴출을 위해 연세대 분회는 계속 투쟁해왔습니다. 집회도 몇 차례씩 하고, 집회 때마다 본관에 들어가서 원청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지요. 최근에는 서명운동과 천막농성도 진행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은 5일 만에 2만 명을 넘겨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시로 일관하던 연세대 원청은 결국 12월 11일 서경지부 총력 결의대회와 본관점거를 기점으로 대화에 나섰습니다. 결국 당일 연세대학교 총무처장이 2013 미화, 경비, 주차관리용역 공개입찰 시 노동조합을 탄압한 적이 있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용역업체는 입찰에 배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중간합의서를 작성하고, 2012년 1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연세대분회의 요구안에 관하여 대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금지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막연히 학생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시려나 생각했는데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한테나 누구한테 신세안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생활한다는 금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남편이나 나나 공직생활을 했다면 연금이라던가 이런 게 있어서 생활이 될텐데, 자영업하고 어찌어찌 애들 가르치고 나니까 노후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나와서 작은 돈이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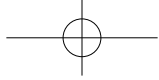
벌어서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껴요.”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한마디를 부탁드렸더니,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옮겨놓고보니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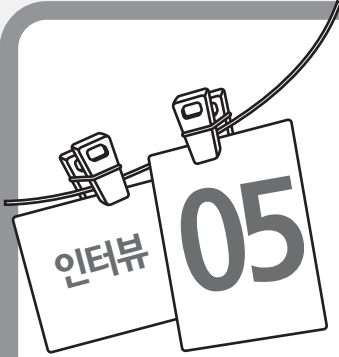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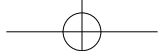
“언제나 금지를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있다고 늘 자부하면서요”

* 인터뷰가 마무리 된 후, 연세대와의 교섭이 있었습니다. 13일 저녁 7시 30분경, 연세대학교 총무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던 3개 업체 연세대에서 퇴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노동조건의 하락이 없도록 기존 단체협약 승계, 그리고 2013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성실 참가를 하게 만든다. 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승리로 이경자 부분회장님을 비롯한 청소노동자들의 생활이 개





선되고, 청소노동자의 긍지가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투
쟁사업장과 여러 여성노동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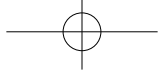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니라 정성만 가득 담긴 밥을 하고 싶다.

학교급식 노동자

예로부터 밥은 하늘이고 생명이라고 여겨왔고, 혼한 우스갯소리로도 인간사가 전부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밥이 인간이 사는 데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밥 짓는 노동에 대해서는 야박하다는 사실을 급식실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밥하는 게 뭐 대수냐는 생각에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사노동을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칭송하지만, 한편으로는 귀찮은 허드렛일로 여기는 통념 말입니다. 결국 집에서 밥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저평가하는 사회적 시선이 밖에서 밥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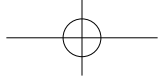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에 맞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지난 11월에 최초로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급식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에 나서 호봉제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 교육감 직고용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투쟁에 동참했던 급식노동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년 차와 20년 차가 같은 임금?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교급식 노동자는 한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을 두루 갖춘 경력 20년 차의 베테랑 조리사였습니다. 다른 직장 같았으면 과장이니 부장이니 하는 직함을 하나 달 법도 한 경력이지요. 하지만 1년 차나 20년 차가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경력 인정이 가장 바라는 바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늘 하던 밥 하는 것이니 경력을 인정할 만큼 대단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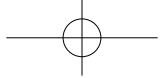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다는 편견이 노동자들의 근속을 부정하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었습
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노동자는 조리과정이 대부분 고온에서 이뤄
져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소규모 조리과정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리사 1인이 3시간 동안 190인분을 담당합니다. 조리실 준
비부터 식자재 검수 보조, 식자재 준비와 각종 조리, 이후 세
척과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히 수행하는 일은 아무에게
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똑딱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죠.”

또한 전체적인 조리과정을 총괄하는 선임조리사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면허를 내걸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집단 식중독 같은 사고
가 발생하면 면허가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
지고 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는 커녕 지
난 20년 동안 줄어드는 학생 수에 따라 인원감축을 해왔기 때문에 매
년 고용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경력 20년의 급식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20년간 고용한다는 것은 거의 종신고용이나
마찬가지고, 항상 반드시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뜻인데 학교 측은 노
동자들을 해고로 위협하며 낮은 임금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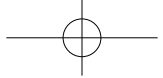
민간보험사가 인정하는 위험직종, 급식조리사

보통 남자들은 힘을 쓰는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힘들고 덜 위험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적은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급식 노동자들은 수백명분의 식사를 만들기 위해 조리기구와 식재료를 들고 나르며, 웬만한 제조업 공장의 노동을 뺀치는 강도로 일하고 있지만 그 노고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조리할 때 튀기고 삶고 볶으면서 불에 데거나, 칼이나 조리도구에 다치거나, 독한 세정제를 쓴다거나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들었다 놔다하기 때문에 조리사 한 명이 하루에 다루는 무게만 수백킬로그램이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적인 인원이 많은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급식 노동자들은 골병이 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급식실 노동자들의 90%이상이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직군에 속하는 조선 선박제조업체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급식 노동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실제로 스팀 솔이 폭발하는 바람에 크게 화상을 입은 동료가 있었어요.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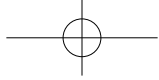


서는 어떤 위험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정작 민간보험에 가입할 때는 위험직종으로 분류된다는 거
죠. 민간보험회사도 인정하는데, 정작 학교만 모르는 척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닌 정성만 가득 담긴 밥을 기대한다!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밥
짓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집에서 매일 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건강
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소중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노동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으





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오랜 경험 속에 터득한 노하우를 인정하여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 노동자의 요구가 수용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면 급식노동자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을 것입니다. 그 밥에 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아닌 정성만 가득 담길 날이 오길 바랍니다.